

한국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장성옥¹⁾ · 공은숙²⁾ · 김귀분³⁾ · 김남초⁴⁾ · 김주희⁵⁾ · 김춘길⁶⁾ · 김희경⁷⁾ · 송미순⁸⁾
안수연⁶⁾ · 이경자⁹⁾ · 이영휘¹⁰⁾ · 전시자¹¹⁾ · 조남옥¹²⁾ · 조명옥¹³⁾ · 최경숙¹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7.2%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전체인구의 9.1%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2020년에는 15.7%로, 그리고 2030년에는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생의 주기에서 노년기를 확장시키며, 길어진 수명에 따른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노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과거보다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Kang, 2003). 따라서 노화는 더 이상 쇠퇴만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도 내포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Rowe & Kahn, 1997).

간호학에서 긍정적인 노년에 대한 관점으로 표현되는 개념은 자아통합감으로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에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심리 정신 상태이다.

Erikson은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자아통합감을 들었으며(Johnson & Webber, 2001). 그는 자아 통합감의 달성이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활동은 노인으로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고 제시한바 있다(Miller, 1999). Erickson의 이론이

발표된 이래 자아통합감은 노인의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정되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에서 노인이 갖도록 해야 하는 바람직한 증재의 방향으로 제시되어왔다(Yoon, 1994; Kim et al., 1997).

그러나 자아통합감은 1960년대 Erikson의 이론에서 소개는 되었지만,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단지 자아통합감은 심리학 및 간호학 교과서에서 Erikson이 제시한 사회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 발달단계 이론에서 노년기 간호 대상자가 갖추도록 해야 하는 노년기 발달과업으로 간호중재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Kim(1989)이 심리적 안녕상태를 자아통합감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활동과 연관하여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 성공적인 노화 상태를 노인의 안녕상태로 보고 Chang(1998)이 노인의 안녕을 개념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정도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지각 그리고 경험에 대한 연구가 2000년도 들어 수행되고 있다(Park & Yi 2002; Kang, 2003; Kim, Shin, Kang & Kang, 2004). 성공적인 노화는 1984년 맥아더 재단에 의해 지원된 노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로 자아통합감과 유사한 용어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창출되었다(Kang, 2003). 이후 성공적 노화의 다면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아통합감과 성공적인 노화가 같은 개념으로 상호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Hong,

주요어 : 자아

-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예수간호대학 교수, 3) 경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9)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0)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1)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12)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교수
13)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7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16일

2002), 성공적인 노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가능성 또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Park & Yi, 2002), 생애를 돌아보는 노년기에 각 발달단계에서의 과업과 문제 회고를 통하여 인생에 대해서 충만감을 느끼는 자아통합감 보다는 노년기에 인생전반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측면이 약하다.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Chang et al., 2004)에서도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이룬 노인은 죽음도 지금까지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정리, 상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과 자신과 타인이 만족하는 생활방법을 형성하는 것이 제시되어진다. 즉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인생의 주기를 거의 지나온 다음에 정리하는 관점을 갖게 되는 노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로, 노년기 초월이론적 관점과 그 속성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시설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993개의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에 따라 간호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중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는 중재가 간호중재로 제기되고 있다. 자아통합감은 Erikson이 사회정신적 이론배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Erikson도 노인이 속한 사회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문화적 고유적 특성이 내재된 개념임을 제시된 바 있어(Ebersole & Hess, 1994), 한국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분석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계에서 자아통합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인의 자아통합감으로 개발된 도구는 Kim(1989)의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자아통합감의 달성으로 보고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로 도구 개발시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제시하는 문헌고찰을 기초해서만 문항을 구성한 제한점이 있다.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는 자아통합감이 사회심리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노인이 진술한 용어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특히 국내의 빠른 노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노년기 원숙과 사회심리적인 안녕상태를 제시하는데 중요개념인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자아통합감도구의 적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개발된 노인의 자아통합감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 도구를 개념적 기틀에 근거하여 개발한다.
- 개발된 노인의 자아통합감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 개발된 노인의 자아통합감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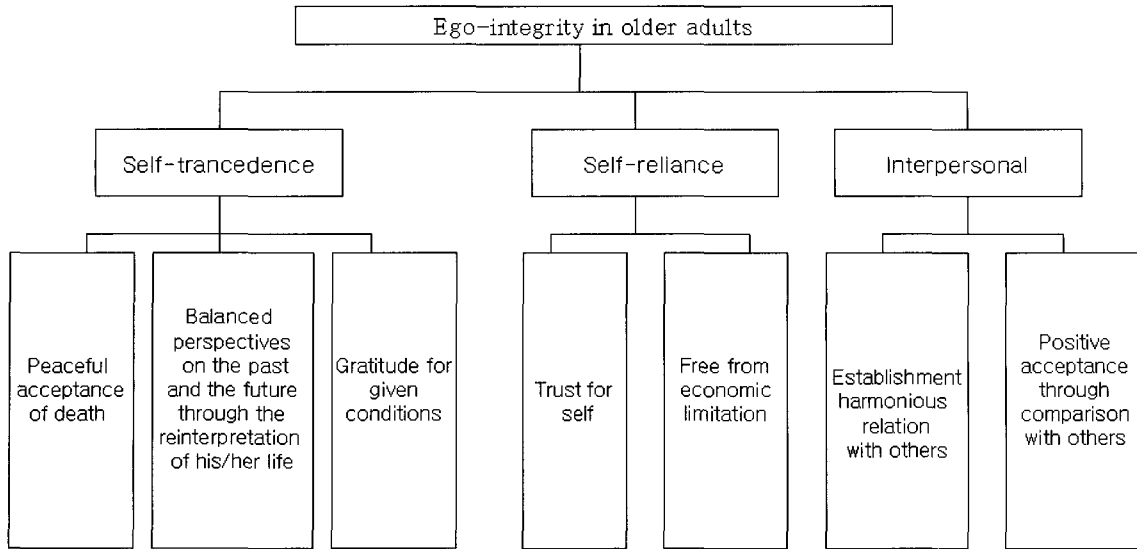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

Erikson은 자아 통합감의 달성은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Miller, 1999). 이를 기반으로 Chang 등(2004)은 개념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노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한 인생주기를 통해서 사회 심리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갖추고, 자신이 속한 세대간의 조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수용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재해석함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을 갖고, 주변여건에 대해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며 주변인과 조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주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작업을 병행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을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Chang 등(2004)의 개념분석의 결과를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기틀로 선택하였다. Chang 등(2004)은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차원으로 자아초월적, 상호관계적, 자기의존적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차원별 속성으로는 자아초월적 차원으로 1) 과거와 미래간의 조화로운 생의 관점 2)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3) 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상호관계적 차원으로는 4)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5) 주변인과의 조화 그리고 자기의존적 차원으로는 6) 자신에 대한 신뢰 7)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ang 등(2004)의 연구를 근거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3개 차원을 초월적 영역, 관계적영역, 그리고 자기의존적 영역을 자기신뢰적 영역으로 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연구 방법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의 수집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자

자아 통합감 도구 설문지를 통한 타당도 검증의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및 경상, 전라도에서 수집되었으며,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 노인으로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316명이었다. 자아통합감 문항은 정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Likert 형으로 제작하였으며(Park, 2000), 노인이 중간 값을 취하는 경향이 높음을 고려하여 4점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작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분석, 주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를 산출하였다.

도구개발과정

● 예비문항 작성단계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예비문항 작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이 문항구성 단계는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 분석을 근거로 한 개념적 기틀을 고려하였다. 예비문항을 위한 진술문은 본 연구팀의 인맥에서 Chang 등(2004)의 자아통합감의 1) 감사한다 2) 수용한다 3) 욕심을 버린다 4) 만족한다 5) 조화롭다 6) 적극적이다의 객관적 지표를 보인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 26인의 면담자료를 근거로 구성하였으며 자아통합감 예비문항을 위한 개방형 질문구성 단계에서 초월적 영역을 위한 질문 구성으로는 ‘지나온 인생생애를 돌아 볼 때 어떠한 생각과 감회를 갖게 됩니까’, ‘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대인 관계적 영역에서는 ‘그동안 주변인들과 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면을 중시하셨습니까’, ‘인생을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면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며, 또 특별히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신뢰적 영역에서는 ‘열심히 살아온 인생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년기 어떠한 면이 자신에게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였다. 진술문 구성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수집된 진술문을 의미상 중복을 피하고 구성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대상자 진술을 37개를 도출하였다.

● 1차 문항 작성

도구의 예비문항은 자아통합감의 지표를 보이는 노인의 자아통합감 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문항의 빈도와 이론적 기틀에서 제시된 틀을 참조로 구성하였다. 내용상의 중복을 최대한으로 피하기 위해서 연구자간의 합의를 거쳐 분류하였다. 그 결과 초월 영역에서 9문항,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5문항, 자기의존 영역에서 7문항 총 21문항이 선정되었다.

● 내용타당도 검증 및 2차 문항 선정

1차로 선정된 문항을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 13인을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하여 개념적 기틀에 따른 3개영역별 문항의 타당성 정도를 매우 타당하면 5점 매우 타당하지 않으면 1점으로 5점 척도를 구성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계수(CVI)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통한 문항 선정에서 수치화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Sung, 2000), 타당성 높은 문항 선정을 위해서 내용타당도 계수(CVI)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2차 문항 선정에서는 21개 문항 중 16문항이 CVI 계수가 80%이상이었으며, 5개 문항이 CVI 계수가 70%이상이었다. 따라서 70%이상을 받은 5개 문항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문항수정을 다시 제의받아 5개 문항을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문항은 자기의존 3번 문항인 '나는 아직도 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못한다'를 '나는 늙그막에 다른 사람보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한다'로 자기의존 7번 문항이 '나는 남에게 신용은 항상 지킨다'를 '나는 남에게 항상 신용을 지킨다', 대인관계 1번 항 '맞지 않는 사람대할 때 화도 낼 필요 없고, 괜히 나에게 해롭다'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해로우므로 화낼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된다'로 수정하였고, 대인관계 2번 항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나는 늙그막에 힘들게 사는 것 같다'를 '나는 주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로, 대인관계 5번 항 '사람들에 대해서 젊을 때 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를 '사람들에 대해서 젊을 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로 긍정형으로 수정하여 총 21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0.86세이었고, 이 중 남성은 115명(36.4%), 여성은 201명(63.6%)이었다. 교육수준은 77명(24.4%)이 초등학교졸업이었고, 71명(22.5%)이 고등학교 졸업, 54명(17.1%)이 무학, 52명(16.5%)이 대학교졸업이상, 50명(15.8%)이 중학교졸업 순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67명(52.8%), 사별한 노인은 102명

(32.3%), 별거가 8명(2.8%), 이혼이 5명(1.7%), 기타가 6명(1.9%)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상태는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89명(28.2%), 부부만 사는 노인이 82명(25.9%),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53명(16.8%), 독신이 40명(12.7%), 결혼한 딸과 동거하는 노인이 22명(7.0%), 자식이외의 친척과 동거하는 노인이 2명(0.6%)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11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80명(25.3%), 무교가 58명(18.4%), 천주교가 55명(17.4%) 기타 3명(0.9%)이었다. 한 달 수입정도는 50만원 미만이 106명(33.5%), 50-100만원미만이 64명(20.3%), 100-150만원 미만이 42명(13.3%), 200만원 이상이 42명(13.3%), 150-120만원미만이 33명(10.4%)이었다.

주관적 신체적 건강지각은 '보통이다'라고 한 노인이 144명(45.6%), '건강하다'가 70명(22.2%), '나쁘다'가 67명(21.1%), '아주 건강하다'가 17명(5.4%), '아주 나쁘다'가 15명(4.7%)이었다.

타당도 검증

● 문항분석

본 연구에서 문항분석 시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0이상인 문항을 우선적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특정해당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alpha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Nunally, 1978). 분석결과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는 높아야 하는데 19개 문항은 모두 .30이상이었으며, 2개 문항이 .20이상, 그리고 3개 문항은 .20이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해당 문항 제외 시 alpha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항분석에서 3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2번 문항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2번 문항 '늙으막에 다른 사람보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다', 18번 문항 '나는 주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였다<Table 1>.

● 요인분석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요인분석에서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은 3개로 누적 변량은 50.72%이었다.

이중 부하가 .40이하인 1개의 문항과 "나는 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를 제외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17개 문항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나누어진 3개 요인에 대한 명명은 부하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고려할 때, 제 1요인은 8개 문항이 1요인에 속하였는데,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화도 낼 필요 없고 괜히 나에게 해롭다", "인생은 둥글둥글 하게 살아가야 한다",

<Table 1> Corrected item in the concept of ego-integrity in older adults-total correlation

Item	Item Contents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item 1	I can accept harsh things with greater ease now than when I was young.	.227	.839
item 2	I have performed my work with sincerity, and my life has not been rewarding	.019	.850
item 3	I believe that I have lived my life according to my means.	.414	.833
item 4	I am happy because I do not depend on others for my livelihood.	.598	.825
item 5	There is no such things as complete satisfaction in life, so one should regulate one's desires.	.580	.826
item 6	I have been well and I am good at regulating my desires.	.594	.825
item 7	My satisfaction with life is due largely to competent parenting by parents, having a good spouse, and having wonderful offspring.	.351	.835
item 8	I am free from the fear of death and I expect a peaceful death.	.529	.827
item 9	I believe that there are some desires that I have not fulfilled in my life. The older I get, the less I value money and honor.	.549	.826
item10	I did not my best to take care of my offspring.	.227	.841
item11	I no longer feel the need to amass a fortune.	.408	.833
item12	Due to lack of money, I can't enjoy my later life than others.	-.209	.853
item13	Due to my tolerant attitude towards people, I have got along with others well throughout my life.	.556	.826
item14	I have performed my work with sincerity, and my life has been rewarding.	.645	.823
item15	I have enjoyed a peaceful and free life.	.561	.825
item16	I have been a creditable person throughout my life.	.547	.828
item17	When I deal with a controversial person, I seek to settle the dispute by peaceful means.	.507	.828
item18	I have not got along with others well throughout my life.	.127	.846
item19	I believe that one can benefit from being affable.	.479	.830
item20	I am lucky because I can do something to benefit my family and others.	.494	.828
item21	I treat others with indulgence than when I was young.	.545	.827

<Table 2> Factor loading of each item and eigen value & variance of each factor of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Item No	Item Contents	Factor Loading		
		Factor1 loading	Factor2 loading	Factor3 loading
17	When I deal with a controversial person, I seek to settle the dispute by peaceful means.	.772		
16	I have been a creditable person throughout my life.	.651		
19	I believe that one can benefit from being affable.	.625		
21	I treat others with indulgence than when I was young.	.615		
20	I am lucky because I can do something to benefit my family and others.	.607		
14	I have performed my work with sincerity, and my life has been rewarding.	.566		
13	Due to my tolerant attitude towards people, I have got along with others well throughout my life.	.505		
9	I believe that there are some desires that I have not fulfilled in my life. The older I get, the less I value money and honor.	.443		
3	I believe that I have lived my life according to my means.		.789	
5	There is no such things as complete satisfaction in life, so one should regulate one's desires.		.775	
8	I am free from the fear of death and I expect a peaceful death.		.493	
7	My satisfaction with life is due largely to competent parenting by parents, having a good spouse, and having wonderful offspring.			.677
15	I have enjoyed a peaceful and free life.			.620
6	I have been well and I am good at regulating my desires.			.528
1	I can accept harsh things with greater ease now than when I was young.			.528
4	I am happy because I do not depend on others for my livelihood.			.526
11	I no longer feel the need to amass a fortune.			.408
Proportion		36.24	7.32	7.15
Cumulative		36.24	43.56	50.7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도울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젊을 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의 4개 관계적 영역의 문항과, “나는 남에게 항상 신용을 지킨다”, “열심히 살다보니까 보답 받은 것도 많았고, 그렇게 보답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좀 양보하고 인내하고 살다보니까 별 충돌 없이 살아온 것 같다”의 3개 자기신뢰 영역 항목 그리고 “못이룬 일도 많지만 현실에 만족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의 1개 초월적 영역 문항이 속하여, 3개 영역이 모두 속하지만 관계적 요인이 우세한 요인이고, 자기 신뢰적 영역과 초월적 영역도 평화로운 대인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문항이 속하여 ‘원숙한 대인관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3문항으로 모든 항목이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문항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욕심 없는 삶’ 요인으로, 제 3요인은 6문항으로 “내가 만족스런 인생을 산 것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식을 잘 만난 덕이라고 생각한다”, “잘 지내온 셈이고, 이제는 내 맘을 다스리면서 산다”, “이제는 어려웠던 지난 일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직 누구에게 바라는 것 없이 사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의 4개의 초월적 영역 문항과 “지금의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면은 모든 면에 아무 구애된 것이 없는 자유로움이다”, “이제는 재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다”의 2개 자기 신뢰적 영역에 속한 항목이 속하여 초월적 영역이 우세한 요인이며, 자기 신뢰적 영역의 문항도 현재의 삶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할 때, 3 요인을 ‘만족스럽게 수용되는 생애’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원숙한 대인관계’, ‘욕심 없는 삶’, ‘만족스럽게 수용되는 생애’의 3개 요인의 요인 특성은 도구개발을 위해서 설정한 본 연구의 개념적 정의의 의미는 잘 반영하고 있지만 개념의 구조에 있어서 3개 영역이 의미상 서로 공유되면서 관계적 영역과 초월적 영역으로 대별되고, 자기 신뢰적 영역은 이 두 영역의 기본 배경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각 요인별 분산율은 <Table 2>와 같다.

●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은 연속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문항의 신뢰도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항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계수인 Cronbach alpha를 측정하였다(Sung, 2000). 17개 문항의 노인의 자아통합감 도구의 전체에 대한 Cronbach alpha는 .88이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제1요인의 Cronbach alpha는 .84, 제2요인의 Cronbach alpha는 .66, 제3요인의 Cronbach alpha는 .72 이었다.

논 의

본고에서는 도구개발 연구로서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발된 자아통합감 도구의 특성을 통하여 한국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조명해보고, 도구개발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실용적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론 적 접근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 문항 분석을 검증하였다. 문항분석과정에서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것은 노인의 자아통합감 전체의 일관성 높은 문항을 선정한 점이라 고려되어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당성 있는 문항의 구성면에서는 Kim과 Lee(1993)는 측정의 자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액면타당성과 내용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액면타당성은 측정연장이 개념의 속성을 어느 정도 짚 수 있는 가에서 개념규정의 절차가 필요로 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의 개념분석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문항개발 절차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요인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로 한 3개 차원 중 초월적 영역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자기 신뢰적 영역 문항과 관계적 영역 문항이 함께 구성된 요인과 자기 신뢰적 영역 문항과 초월적 영역 문항이 구성된 요인으로 분류된 것은 이론적 구분으로써의 자아통합감 개념의 좀 더 깊은 탐구가 요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도구는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 않고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용이한 신뢰도 조사방법으로 내적일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17문항으로 비교적 문항수가 적고,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피험자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다(Sung, 2000).

Kim(1989)의 연구에서 자아통합감 도구는 자아통합감의 6개영역을 확인하여 요인명을 명명하였는데, 즉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긍정적인 자아상, 삶의 존엄성과 가치의 확신, 지혜로운 삶, 죽음에 대한 수용이었다. 이 31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통합감 도구와 문항 내용별로 비교하면 초월적 영역의 문항과, 지혜로운 삶, 생애에 대한 태도는 자기신뢰적 및 관계적 영역의 문항과 유사하지만 측정당시의 감정과 느낌 생각에 기술 중심인 반면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자아통합감 문항은 감정과 느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같이 제시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이라는 일생을 통하여 형성된 개념측정에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고 사료된다. 이는 문항구성이 한국 노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구성된 것으로 노인이 자신이 노년에 느끼는 통합된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된 근거이유를 같이 제시하여 표현한 것을

도구개발 문항에 반영하여 노인이 문항에 답할 때, 좀 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아통합감 개념이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개발된 개념이고 Erikson도 자아통합감은 그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Ebersole & Hess,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 측정을 위한 초기 문항을 구성할 때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 작업 단계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분석을 시도한 점과 이를 근거로 자아통합의 지표를 보이는 노인의 진술을 작성하고, 수집하여 자아통합감에 대한 한국 노인이 갖는 실제적 문항을 구성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자아통합감의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원숙한 대인관계', '욕심 없는 삶', '만족스럽게 수용되는 생애'의 3개 요인이며, 요인 특성은 본 연구에서 개념의 기틀로 한 Chang 등(2004)의 자아통합감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Chang 등(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적 차원의 구조화된 측면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3개 영역 즉 초월적 영역, 관계적 영역, 및 자기 신뢰적 영역은 관계적 영역과 초월적 영역으로 대별되고, 자기 신뢰적 영역은 이 두 영역의 기본 배경이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열심히 살다보니 보답도 받았고, 남에게 신용을 지킬 수 있었고, 자손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돈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문항의 의미를 고려할 때, 자기 신뢰적 영역은 열심히 살면서 갖추게 된 절제된 경제적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자아통합감의 특성은 경제적 자율성이 기반이 되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기신뢰성과 초월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융통성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자율성은 Park과 Yi(2002)의 성공적 노화의 인식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초월성은 문항구성에서 삶을 조망하는 측면, 죽음을 수용하는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노년기초월(gerotranscendence)이론은 2000년대 들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나이 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모든 노인에게 높은 수준에서의 노인의 초월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관점이 바뀌고 현실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Wadensten & Carlsson, 2001)으로 제시되고 있다. Erikson의 8단계 발달과업에 관한 이론을 확장하여 노년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세분화하면서 정신 사회적 인생주기를 계속적으로 탐구한 Peck(1986)도 노년기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의 영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노년에 필요한 중재

를 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영성적 측면을 강조한 초월을 강조한 바 있어, 자아통합감 중재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사료된다.

그간 간호 교육에서는 노년기에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발달위기를 자아통합감 대 절망으로 보고 자아통합감을 성취하고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노인의 자포자기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기법으로 생의 회고라고 불리는 회상을 제시하여왔다(Song, Ha, Yoo, & Park, 2002). 또한 생의 회고법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중요개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아통합감이다(Butler, 1996). 따라서 자아통합감 중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선별과 중재 중재 영역의 확인을 위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는 개념개발을 통해서 한국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과 영역을 확인하고, 한국인을 면담하여 자아통합감 문항 구성을 처음 시도한 연구로 노인간호학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많은 연구라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개발과정은 예비문항 작성단계, 최종문항 선정단계로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이었다. 타당도 검증은 문항분석, 요인분석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3개요인 17개 문항이 확정되었고 요인의 누적 변량은 50.72%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본 연구에서의 개발된 17개 문항의 노인의 자아통합감 도구의 전체에 대한 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아통합감의 개념분석을 통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고 자아통합감 지표에 따라 선정된 노인의 진술을 통한 문항작성과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한 도구개발을 수행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를 위한 연구와 관련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분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언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본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를 이용한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utler, R. (1996). Life review. In J. E. Birren(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ge, aging, and aged* (pp.

- 53-58). San Diego: Academic Press
- Chang, S. O., Kong, E. S., Kim, K. B., Kim, N. C., Kim, J. H., Kim, C. G., Kim, H. K., Song, M. S., Ahn, S. Y., Lee, K. J., Lee, Y. W., Chon, S. J., Cho, N. O., Cho, M. O., & Choi, K. S. (2004). The concept analysis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4(7), 1172 -1183.
- Chang, H. K. (1998). *The development of well-being scale of the Korean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Ebersole, P., & Hess, P. (1994).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4th ed.)*. St.Louis: Mosby.
- Hong, H. B. (2002).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religion. *J Korea Gerontol Soc*, 22(3), 245-259.
- Johnson, B. M., & Webber, P. B. (2001).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asoning in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 Kang, I. (2003).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J Welfare for the Aged*, 20(Summer), 95-116.
- Kim, J. S. (1989). *A study of social activities and ego integrity of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K. D., & Lee, O. J. (1993). *Methodology for social investigation*. Seoul: bakyounsa.
- Kim, M. H., Shin, K. R., Kang, M. S., & Kang, I. (2004). A study of successful aging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4(2), 79-95.
- Kim, M. J., Kim, K. S., Kim, J. I., Park, H. S., Song, K. A., & Choi, S. H. (1997).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Hyunmuns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The population of korea*. Web site :<http://kosis.nso.go.kr>
- Martha, R., Crowther, Michael, W., Parker, W. A., Achenbaum, Walter, L. Larimore, & Harold, G. Koein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 Miller, C. A. (1999).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Theory & practice(3rd ed.)*. Philadelphia. New York. Baltimore: Lippincot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An expansion plan of nursing home*. Web site :<http://www.mohw.go.kr>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Park, D. S. (2000). *Methodology for items production*. Seoul: Kyoyookgoahaksa.
- Park, K. R., & Yi, T. S. (2002). A study on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 Korea Gerontol Soc*, 22(3), 53-66.
- Peck, R. C. (1986).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88-9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ong, M. S., Ha, Y. S., Yoo, S. J., & Park, Y. H. (2002).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ung, T. J. (2000). *Validity and reliability*. Seoul; Yangseowon.
- Wadensten, B., & Carlsson, M. (2001).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aff members' interpretations of signs of gerotranscendence. *J Adv Nurs*, 36(5), 635-642.
- Won, Y. H. (1995).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J Korea Gerontol Soc*, 15(2), 97-116.
- Yoon, J. (1994). *Psychology for the adult and the elderly*. Seoul: Joongangjunksung Publishing Co.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Korean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Chang, Sung Ok¹⁾ · Kong, Eun Sook²⁾ · Kim, Kwuy Bun³⁾ · Kim, Nam Cho⁴⁾ · Kim, Ju Hee⁵⁾
Kim, Chun Gill⁶⁾ · Kim, Hee Kyung⁷⁾ · Song, Mi Soon⁸⁾ · Ahn, Soo Yeon⁶⁾ · Lee, Kyung Ja⁹⁾
Lee, Young Whee¹⁰⁾ · Chon, Si Ja¹¹⁾ · Cho, Nam Ok¹²⁾ · Cho, Myung Ok¹³⁾ · Choi, Kyung Sook¹⁴⁾

1)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3)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4)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6)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7)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8)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9)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0)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11)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12)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3)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14)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is the central concept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later life. Therefore, for effective interven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later life, a scale to measure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is necess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cronbach's alpha in analyzing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ed data and expert group, and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to analyze validity. **Results:** Seventeen item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21 item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internal consistency was .88 for the 17 items of ego-integrity in the older adults scale. Three factors evolved by factor analysis, which explained 50.71%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s:** The scale for measuring ego-integrity in Korean older adults in this study was evaluated as a tool with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 Ego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Kyung Ja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imun-ku, Seoul, Korea
Tel: 82-2-2228-3302 E-mail: kyunglee@yumc.yonsei.ac.kr